

외동이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The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of Only Children

송 나 리

Song, Na Lee

박 성 연**

Park, Seong Ye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ocial and cognitive competence of the only children in comparison with children with siblings. The sample consisted of 360 children from kindergartens, elementary schools(2nd and 5th grades),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in Seoul. Data were gathered through questionnaires on social and cognitive competenci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differences in social and cognitive competence between only children and sibling children varied by age of the child. (2)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by sex in social competence and cognitive competence among both only children and sibling children. (3) The voluntariness of fertility outcomes was not related either to the social or cognitive competence of only children for each age group.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은 형제가 개인의 발달을 위해 결정적인 학습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외동이의 경우, 형제의 부재라는 것이 발달상의 많은 결함을 유도해낸다고 주장하여 왔다(Falbo & Polit, 1986, 재인용). 그러나, 형제관계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한마디로 단순화시켜 설명될 수 없으며 특히, 대개는 형제유무가 또래관계에서의 사회성을 예측해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아동이 형제관계와 또래관

계에서 수행하게 되는 역할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형제관계와 또래관계는 상관성이 높은 행동측면도 있고 무관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김상희, 1990). 그러므로, 형제의 존재 혹은 부재가 아동의 인성발달에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형제유무 그 자체가 결정적인 것이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외동이에 있어서는 그들의 부모-자녀관계에 따라 발달이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 최근의 주장이다(Falbo & Cooper, 1980; Blake, 1981; Falbo & Polit, 1986).

그런데, 한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아이가 하나이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관심과 시간을 제공함

* 본 논문은 1992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방식으로 아동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나, 실제로 외동이인 경우에 염려되는 부분은 아동의 이기적이거나 의존적인 행동특성을 야기시킬수 있는 어머니의 '지나친 애정이나 기대'등과 같은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아이가 하나라는 사실 그 자체에 기인한다기보다는 그 외의 요인들 즉, 외동이에 대한 문화적인 편견이나 기대 혹은 어머니가 외동이를 갖게 된 동기 등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리라고 본다(Falbo, 1982, 1984).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뿌리깊은 유교주의의 영향으로 아직까지 남아선호사상이 잔재하고 있고 따라서 자발적으로 한 자녀를 선택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이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특히, 젊은 층에서 한 자녀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인구 및 주택 센서스, 1985) 이는 외동이에 대한 편견이 점차 바뀌어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외동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들의 변화와 더불어, 또한 외동이의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연령'의 문제가 있다. 즉, 외동이와 형제아간에 나타난 차이의 내용과 정도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본다(Falbo, 1982). 실제로, 미국과 중국에서 이루어진 외동이에 관한 연구들은 서로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즉, 미국 연구의 대부분은 외동이와 형제아의 발달특성간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반면(Blake, 1981; Falbo, 1981; Falbo & Polit, 1986, 1987; Blake, Richardson, & Bhattacharya, 1991), 중국에서는 외동이와 형제아간에 차이가 나타나, 외동이가 형제아에 비해 더욱 부정적인 발달특성을 보이고 있다(Ching, 1982; Jiao, Ji, & Jing, 1986). 이렇게, 미국과 중국에서 이루어진 외동이에 대한 연구결과에 차이가 나는 것은 대부분의 미국연구가 성인초기

의 외동이를 대상으로 한 반면, 중국은 학령전기나 국민학교 시기를 다루었다는데 기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외동이의 발달을 설명해 주는 것은 단지 '형제수'가 아니라, 연령이나 외동이를 갖게 된 배경, 양육행동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한 자녀인 경우에 남아가 여아에 비해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성에 따라서도 외동이의 발달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부터 청소년기까지의 외동이와 형제아를 대상으로 하여,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형제유무에 따른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의 발달을 비교하는데 연구의 주된 목적을 두었다. 또한, 어머니가 외동이를 갖게 된 동기에 따라 외동이의 발달에는 차이가 있는가도 밝혀 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외동이와 형제아는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에서 차이가 있을 것인가?

가설 1. 외동이와 형제아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며, 그 차이는 연령에 따라 다를 것이다.

〈연구문제 2〉 아동의 성별에 따라 외동이와 형제아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은 차이가 있을 것인가?

가설 2. 아동의 성별에 따라 외동이와 형제아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출산동기에 따라 외동이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인가?

가설 3. 자발적인 출산동기를 가진 어머니의 외동이 비자발적인 경우보다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이 더 우수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외동이의 발달에 관한 이론적 틀

외동이에 관련된 문헌들을 살펴보면, 외동이의 발달결과를 설명해 주는 주된 심리적인 과정을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기본적인 메카니즘으로 설명하고 있다.

(1) 결핍 메카니즘

형제관계는 아동에게 결정적인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외동이는 형제의 부재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외동이는 형제있는 아동보다 불리하며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특히, 결핍 메카니즘은 외동이 지능의 '비연속성'을 confluence model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Zajonc & Markus, 1975) 이 모델에 따르면 첫째, 가족의 지적환경요인에 의해 어른이 둘 있고 어린아이가 한 명뿐인 외동이의 경우가 지능에 있어서는 가장 높을 것으로 가정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외동이와 막내는 어린 동생을 가르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적발달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동이의 경우 아동초기에는 두자녀 가정의 아동보다 지능검사 점수가 높으나, 이러한 상태는 형제가 서로를 위한 지적 자원으로 쓰이게 되는 아동후기, 청년기 동안에 점차 역전하여 성인초기가 되면 외동이 두 자녀 가정의 맏이보다 낮은 점수를 보인다고 주장되고 있다.

(2) 독자성 메카니즘

이 메카니즘은 외동이가 경험하게 되는 '독자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외동이는 동생으로 인해 자기의 지위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다는 점에서 맏이와 유사하다. 또한, 외동이는 다른 아동과 달리, 외동이라는 그 자체로서 전 가족의 크기를 대표하기 때문에 독자적이다. 결핍 메카니즘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외동이 발달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독자성 메카니즘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외동이 발달에 있어 자기 중심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과 함께, 리더십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설명하고 있다.

3. 부모-자녀 관계 메카니즘

위에 제시되었던 두가지의 메카니즘은 외동이의 위치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에, 부모자녀 관계의 메카니즘은 특별히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적'인 측면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외동이와 맏이는 적어도 일정기간 동안은 부모에게 외동이로서 혹은 맏이로서의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 원리는 비슷하게 적용된다. 즉, 외동이와 맏이의 경우, 부모들은 아동양육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더욱 불안하게 되고, 따라서 아동의 행동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비현실적일도록 한다. 이러한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의 충분한 관심과 배려로 아동이 자신감을 얻도록 하며, 첫 아이에 대한 부모의 높은 기대수준은 아동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것이 외동이나 맏이로 하여금 더 우호적이게 하고, 성취동기나 내적통제력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본다(Falbo, 1984).

일반적으로, 부모의 지나친 애정이나 관심은 아동 스스로 능동적인 역할을 학습할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아동에게 의존성이나 이기심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시킨다고 알려져 왔으나, 최

근의 연구들은 부모의 관심이 아동의 지적 발달이나 성취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하고 있다(Falbo & Cooper, 1980; Blake, 1981).

2. 외동아와 형제아간의 발달 비교

(1) 성취수준 및 지적 발달

‘성취수준’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외동아와 소가족 아동, 특히 맏이인 경우에 보다 긍정적인 발달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즉, Blake(1981), Falbo(1981) 그리고 Ching(1982)에 따르면, 부모의 고조된 관심이 아동의 수행에 대한 기대를 부추기고 성취를 보상하며 자극하기 때문에, ‘성취’에 있어서는 외동아의 경우, 형제가 없다는 것이 결함인 된다고보다는 부모의 높은 기대수준으로 인한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성취수준’에 있어서 외동아의 우수함은 나이든 아동일수록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Falbo & Polit, 1986), 연령이 중재변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자녀가 한명일 경우에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가족의 재정적 자원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높은 교육과 성취를 이끌어내는 경험을 하도록 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다음으로 ‘지적발달’에 있어서는, 외동아에 관한 연구들은 일관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Zajonc(1976)는 confluence model을 제시하여, 외동아는 동생을 가르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맏이에 비해 지능이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하였는데, Falbo(1984)에 의하면 이러한 외동아의 낮은 지적능력은 가르칠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른 요인 즉, 외동아는 편부모 가정에서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외동아의 지적발달에 부정적으로 영향 미쳤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 지적은 Claudy, Farrell과

Dayton(1979)의 연구에서 확인될 수 있었는데, 이들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종단적 연구를 시행한 결과, 결손가정에 의한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 외동아가 두자녀 가족의 아동보다 인지적 수행면에서 더 우수함을 발견하였다(Falbo & Polit, 1986, 재인용). 그 후, Falbo와 Polit(1986)은 광범위한 외동아 연구들을 종합하여 정교한 양적 분석을 시도하여 지능에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종합분석한 결과, 외동아가 비외동아보다 지능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성취수준’과 달리, ‘지능’의 경우에는 외동아의 우수성이 어렸을 때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confluence model이 어느정도 지지된다고도 볼 수 있으나, 위의 결과는 Falbo Polit(1986)이 지적하였듯이, 형제의 가르침의 효과가 극대화되어 표현된다는 성인초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피험자가 적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모든 연령층에서 외동아가 비외동아보다 지적발달이 우수하였기 때문에 (Falbo & Snell, 1984) confluence model의 타당성은 의문시되고 있다(박성연, 1990).

결론적으로, 이제까지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대부분 외동아가 소가족 자녀의 아동과 비교되었을 때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대가족 자녀와 비교되었을 때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성취’나 ‘지적발달’의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형제가 없다는 것이 발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사회적 발달

외동아의 사회성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사실이 주목할 만하다.

즉, 첫째는 외동아의 사회성에 대한 연구들은 문화권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는 외동아의 경우가

사회성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보고한 반면(Ching, 1982; Jiao, Ji, & Jing, 1986), 미국의 연구결과들은 외동이와 형제아간의 사회적 발달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했다(Blake, 1981; Falbo & Polit, 1986, 1987; Blake, Richardson, & Bhattacharya, 1991).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의 해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의 연구들은 각기 다른 연령의 피험자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학령전기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면, 미국에서는 주로 성인초기를 대상으로 하여 외동이의 사회성을 평가하였다. 사회성에 있어서 외동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아동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Falbo, 1982) 이는 외동이는 성장함에 따라 가정 밖에서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동시에, 부모의 계속적인 주의를 독점함으로써 다른 아이들과의 차이는 줄어들거나 제거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남아선호사상이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정책적인 의도로 한자녀 갖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자발적인 의사보다는 타의에 의해 한자녀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이것이 외동이에 대한 부모의 태도 및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두번째로는, 사회성 측정방법의 문제가 있다. Falbo와 Polit(1986)은 외동이 연구를 광범위하게 고찰한 결과, 사회성의 영역에서는 연구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자기보고식의 사회성 자료인 경우에는 외동이의 점수가 비외동이보다 낮았으나, 반대로 다른 사람에 의한 평가에서는(ex. 또래평정) 비외동이와 마찬가지로 외동이의 사회성 점수가 높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아직까지 적은 편이며, 어머니의 양육태도면이나(김진남, 1987) 이성의 형제가 있는 외아들, 외딸을 형

제아와 비교한 연구들(이남기 와 정복남, 1977; 우회정, 1983; 김제한, 1984)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상당히 소수의 연구만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내용면에서나 연령면에서 제한된 경우가 많았었는데, 즉 형제가 전혀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대부분이 취학전 아동의 연령이었으며, 내용면에서는 외동이의 경우, 형제가 없기 때문에 특히, 성격이나 사회성의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이러한 쪽으로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결과,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는 외동이와 형제아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제한, 1986; 박범실, 1986; 이성진, 이기우, 1986; 서동주, 1988; 김숙경, 1989; 김정아, 1990).

또한, 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형제유무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는 외동이의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경우가 많은데 그 결과, 외동이의 발달은 성에 따른 차이가 없거나(김숙경, 1989) 큰 차이는 아니지만, 남아에 비해 여아인 경우의 발달이 더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제한, 1986; 서동주, 1988). 그러나, 사용된 척도가 서로 달랐으므로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 다만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거나(김진남, 1987; 김숙경, 1989), 외동이가 여아인 경우에는 아들 못지 않게 키우려는 어머니의 교육적인 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이성진·이기우, 1986; 서동주, 1988).

위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볼 때, 외동이에 관한 연구는 측정된 연구대상자의 연령이라든지 측정방법의 문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외동이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형제유무에 따른 문제만이 아니라 아동의 연령이나 성, 그리고 외동이를 갖게된 동기등

과 같은 변인들을 고려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령이 서로 다른 다섯집단의 외동아와 형제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즉, 유치원 5, 6세 아동 72명(남=40, 여=32), 국민학교 2학년 아동 71명(남=37, 여=34), 국민학교 5학년 아동 65명(남=33, 여=32), 중학교 1, 2학년 70명(남=38, 여=32)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 82명(남=44, 여=38)의 총 360명을 표집하였다. 대상 아동의 표집 지역은 중·상류층으로 제한하였으며, 외동아에 있어서는 부모의 결혼상태가 별거나 이혼, 혹은 사별에 해당하는 경우를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연구대상자의 변인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형제유무나 아동의 성에 따라서는 고르게 분포되었으며, 형제아인 경우의 총 자녀수는 대부분이 두자녀로서 소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 측정도구

(1) 사회적 능력에 대한 측정도구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연령이 다른 다섯집단의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의 연령에 따라 사회적 능력척도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즉, 유치원 아동의 사회적 능력 척도는 Pease 등(1979)의 ISCS-P(Iowa Social Competence Scale: Preschool)를 교사용으로 번역,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국민학교 아동용으로는 최경순(1992)이 Pease 등(1979)의 ISCS-S(Iowa Social Competence Scale: School Form)를 개작한 척도를 교사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청소년용으로는

Allen 등(1989)이 사용한 teacher ratings of adolescents' social competence의 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각기 다른 사회적 능력 척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각 척도의 문항내용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사용한 척도들이 모든 유사한 내용을 평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각 연령에 따라 사용된 사회적 능력 평가척도들의 하위요인을 비슷한 내용끼리 서로 연관시켜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학령전 아동용은 '지도력'(9문항), '유능성'(5문항), '과민성'(5문항) 그리고 '불안정성'(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학령기 아동용은 '지도력'(6문항), '유능성'(7문항), '방해성'(8문항), '불안정성'(3문항)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애정'요인(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서, 학령전 아동용의 '과민성'은 학령기 아동용의 '방해성'요인과 연결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두 요인 모두 아동의 과민한 행동특성이 또래관계에서 협조적이지 못하고 원만하지 않은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5, 6세아동에게 나타났던 '과민적인' 반응양식이 학령기에는 '방해적인 행동'으로 변화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밖에, 학령기 아동용에는 '선생님에 대한 애정'요인이 첨가되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 시기에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또래관계의 질'(7문항)과 '유능성'(4문항) 그리고 '방해성'(3문항)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적 능력의 하위요인에 대한 각 문항들은 '매우 그렇다'의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까지 5점척도로 되었고, 따라서 각 요인별로 점수가 산출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그 요인의 행동이 많이 나타낸 것이다.

요인분석 결과 얻어진 아동의 사회적 능력 척도

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학령전 아동용의 각 하위변인의 신뢰도는 Cronbach α 0.83-0.90이었으며, 학령기 아동용은 Cronbach α 0.73-0.90, 그리고 청소년용은 Cronbach α 0.55-0.88의 내적합치도를 나타냈다.

(2) 인지능력에 대한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의 인지능력 척도는 Clark등 (1983)의 Iowa Inventory for Parent Assessment of Children's Competence(신체운동능력, 인지능력, 책임감, 인성, 미술능력, 음악능력)중 인지능력 요인을 번역,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모든 연령층의 아동에게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총 9문항으로 '매우 그렇다'의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까지 5점척도로 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능력이 우수한 것이다. 인지능력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0.90-0.94의 내적합치도를 나타냈다.

(3) 어머니의 출산동기

한자녀를 두게 된 이유는 총 8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어머니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3개 선택하여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3. 연구절차

먼저, 예비조사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들을 교사용 질문지로 작성하여 35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문항의 신뢰도가 낮거나 표현이 부적절한 것에 대해 수정, 보완한 후 본조사는 1992년 8월 23일부터 9월 18일까지 강남지역에 있는 6개 유치원과 5개 국민학교, 4개의 중학교, 6개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한학기 이상 그 아동을 맡아 지도해 온 담임교사에게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인지능력에 대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아동의 어머니에게는 가정환경 및 한자녀를 두게 된 이유등에 관한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교사용과 어머니용이 한쌍으로 총 720부(360쌍)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각 연령별로 형제유무와 성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 및 ANOVA를 실시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비자발적·자발적인 출산동기에 따라, 외동이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 및 t-검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연구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각 연령집단에서의 외동이와 형제아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의 비교

첫째, 5, 6세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을 비교한 결과, 외동이와 형제아간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학령전 아동을 대상으로, 외동이와 형제아의 사회적 능력간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Zheng & Colombo(1988), 박범실(1986) 그리고 김정아(1990) 등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나, 중국 아동을 대상으로 외동이가 형제아에 비해 자기중심성이나 비협조성 등이 더 높게 나타난 Ching(1982)의 연구나 Jiao, Ji와 Jing(1986)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연구결과와의 차이는 중국에서는 한

자녀를 갖게 된 동기가 타의에 의해 이루어진 반면, 미국이나 우리나라, 특히 젊은 층의 부모들은 보다 자발적인 의사로 한자녀를 선택한 경우가 더 많을 것이므로 이것이 특히,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인지능력에 있어서는, 4-7세 아동의 지능검사 점수를 형제유무에 따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Brackbill과 Nichol(198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국민학교 2학년 외동이와 형제아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을 비교한 결과는 <표 1>과 같으며, '지도력'(t=-3.31, p<.01), '유능성'(t=-4.50, p<.001) 그리고 '인지능력'(t=-3.85, p<.01)에 있어 형제아가 외동이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그러나, '선생님에 대한 애정'요인과 사회적 능력의 부정적인 요인인 '방해

<표 1> 국민학교 2학년 외동이와 형제아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

| 독립변인 | 외동이 (N=34) | | 형제아 (N=37) | | t |
|------------|------------|------|------------|------|----------|
| | \bar{X} | S.D | \bar{X} | S.D | |
| 지도력 | 17.97 | 4.86 | 21.32 | 3.58 | -3.31** |
| 유능성 | 25.09 | 4.66 | 29.41 | 3.24 | -4.50*** |
| 방해성 | 22.12 | 6.56 | 23.38 | 6.37 | -0.82 |
| 불안정성 | 7.94 | 1.92 | 7.30 | 2.40 | 1.23 |
| 선생님에 대한 애정 | 12.71 | 3.33 | 12.43 | 3.24 | 0.35 |
| 인지능력 | 34.16 | 6.87 | 39.58 | 4.07 | -3.85** |

** p<.01 *** p<.001

성'과 '불안정성'요인에서는 외동이와 형제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국민학교 5학년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을 비교한 결과 <표 2>, '선생님에 대한 애

정'요인과 '방해성'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지도력'(t=-3.97, p<.01)과 '유능성'(t=-3.19, p<.01), '불안정성'(t=2.00, p<.05)그

<표 2> 국민학교 5학년 외동이와 형제아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

| 독립변인 | 외동이 (N=28) | | 형제아 (N=37) | | t |
|------------|------------|------|------------|------|---------|
| | \bar{X} | S.D | \bar{X} | S.D | |
| 지도력 | 16.69 | 5.11 | 21.89 | 5.12 | -3.97** |
| 유능성 | 23.92 | 6.37 | 28.38 | 5.01 | -3.11** |
| 방해성 | 22.59 | 6.52 | 23.11 | 6.63 | -0.31 |
| 불안정성 | 8.73 | 2.86 | 7.30 | 2.76 | 2.00* |
| 선생님에 대한 애정 | 11.23 | 3.05 | 11.32 | 3.59 | -0.10 |
| 인지능력 | 31.08 | 7.27 | 36.54 | 6.14 | -3.19** |

* p<.05 ** p<.01

리고 '인지능력' (t=-3.19, p<.01)에 있어서 외동이가 형제아에 비해 더 낮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형제아인 경우에도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아와 둘째이하를 구분한 다음, 외동이와 첫째아, 둘째이하의 아동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불안정성'에 있어 외동이와 형제아간에 유의했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즉, 형제아간에도 첫째아와 둘째이하 아동의 '불안정성'요인 점수 사이에는 어느정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 외동이에 관한 연구들은 외동이를 형제아와 구분시켜 이 두 집단만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러한 접근은 형제아의 '집단 내 차이'를 상쇄시켜, 상대적으로 외동이와 형제아간의 차이를 확대시키거나 혹은 그 차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중학교 1, 2학년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및

〈표 3〉 국민학교 5학년 외동이, 첫째아, 둘째이하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

| 종속변인 | 외동이 (N=28) | | 첫째아 (N=16) | | 둘째이하 (N=21) | | F |
|-----------|------------|------|------------|------|-------------|------|---------|
| | \bar{X} | S.D | \bar{X} | S.D | \bar{X} | S.D | |
| 지 도 력 | 16.69 | 5.11 | 22.69 | 6.06 | 21.29 | 4.33 | 8.19*** |
| 유 능 성 | 23.92 | 6.37 | 29.31 | 5.29 | 27.67 | 4.79 | 5.20** |
| 방 해 성 | 22.59 | 6.52 | 23.50 | 6.50 | 22.81 | 6.87 | 0.1 |
| 불 안정 성 | 8.73 | 2.86 | 7.94 | 3.55 | 6.81 | 1.91 | 2.76 |
| 선생님에 대한애정 | 11.23 | 3.05 | 11.75 | 3.49 | 11.00 | 3.71 | 0.23 |
| 인 지 능 력 | 31.08 | 7.27 | 37.25 | 6.79 | 36.00 | 5.72 | 5.18** |

** p<.01 *** p<.001

인지능력을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의 모든 영역에서 형제아가 외동이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표 4〉 중학교 1, 2학년 외동이와 형제아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

| 종속변인 | 외동이 (N=34) | | 형제아 (N=35) | | t |
|---------|------------|------|------------|------|---------|
| | \bar{X} | S.D | \bar{X} | S.D | |
| 또래관계의 질 | 26.15 | 5.05 | 29.29 | 3.95 | -2.88** |
| 유능성 | 13.85 | 3.38 | 15.74 | 3.07 | -2.43* |
| 방해성 | 3.71 | 1.78 | 2.69 | 1.11 | 2.91** |
| 인지능력 | 31.20 | 8.69 | 35.97 | 6.11 | -2.58* |

* p<.05 ** p<.01

다섯째, 고등학교 1, 2학년 외동이와 형제아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을 비교한 결과(표 5), 사회적 능력에 있어서는 외동이와 형제아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초기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미국 연구들이 외동이와 형제아간의 사회적 발달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것과 일치하고 있다(Blake, 1981; Falbo & Polit, 1986, 1987; Blake, Richardson, & Bhattacharya, 1991). 고등학교 1, 2학년 아동인 경우에는, 한자녀를 갖게 된 동기가 비자발적인 경향이 많고, 또한 외동이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등으로 이들의 발달이 상당히 부정적일 것으로 추측했었으나 본 연구 결과, 이 연령의 아동에 있어서 외동이와 형제아간의 사회적 능력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연령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형제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 본 연구가 없었으므로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성인 초기를 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어느정도 성장한 후의 형제유무에 따른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인지능력’에 있어서는 본 연구결과, 고등학교 1, 2학년의 외동이와 형제아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외동이와 첫째아, 그리고 둘째이하의 아동으로 구분되었을 때(F=4.59, p<.05),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표 6), 둘째이하의 아동이 만이나 외동이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연령층에서 외동이가

비외동이보다 지적발달이 우수하였다고 결론내린 Falbo와 Snell(1984), Falbo와 Polit(198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고 있다.

한편, 「부모의 교육수준」 특히,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영향력을 제외시킨 후의 외동아와 형제아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다른 연령에서는 연구결과에 차이가 없었던 반면, 고등학교 1, 2학년 아동의 '인지능력'에서는 외동아와 형제아간에 유의했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고등학교 1, 2학년 외동아와 형제아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

| 독립변인 종속변인 | 외동아 (N=30) | | 형제아 (N=52) | | t |
|--------------|------------|------|------------|------|-------|
| | \bar{X} | S.D | \bar{X} | S.D | |
| 또래관계의 질 | 27.07 | 4.59 | 27.67 | 4.60 | -0.58 |
| 유능성 | 14.37 | 2.81 | 15.24 | 3.19 | -1.24 |
| 방해성 | 3.87 | 1.72 | 3.48 | 1.63 | 1.01 |
| 인지능력 | 31.00 | 5.66 | 33.98 | 7.42 | -1.87 |

〈표 6〉 고등학교 1, 2, 학년 외동아, 첫째아, 둘째이하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

| 독립변인 종속변인 | 외동아 (N=30) | | 첫째아 (N=23) | | 둘째이하 (N=29) | | F |
|--------------|------------|------|------------|------|-------------|------|-------|
| | \bar{X} | S.D | \bar{X} | S.D | \bar{X} | S.D | |
| 또래관계의 질 | 27.07 | 4.59 | 26.48 | 4.32 | 28.62 | 4.67 | 1.59 |
| 유 능 성 | 14.37 | 2.81 | 14.52 | 3.22 | 15.85 | 3.08 | 1.98 |
| 방 해 성 | 3.87 | 1.72 | 3.61 | 1.67 | 3.38 | 1.61 | 0.63 |
| 인 지 능 력 | 31.08 | 5.66 | 31.50 | 7.84 | 35.93 | 6.57 | 4.59* |

* $p < .05$

2. 아동의 성별에 따른 외동아와 형제아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

첫째, 5, 6세 외동아와 형제아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을 각각 성별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외동아'의 경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외동아인 경우에는 '유능성'(t=-2.21, $p < .05$)에 있어서,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표 7). 이러한 결과는 5, 6세 외동아의 어머니들은 성에 의해 영향받지 않고 즉, 아들이건 딸이건 구애받지 않고 균등하게 양육한다는 김진남(1987)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7〉 5,6세 외동아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

| 독립변인 종속변인 | 남 아 (N=21) | | 여 아 (N=13) | | t |
|--------------|------------|------|------------|------|--------|
| | \bar{X} | S.D | \bar{X} | S.D | |
| 지도력 | 28.00 | 7.89 | 28.08 | 5.74 | -0.03 |
| 유능성 | 17.76 | 3.81 | 20.42 | 2.19 | -2.21* |
| 과민성 | 13.29 | 3.23 | 12.08 | 4.55 | 0.91 |
| 불안정성 | 10.48 | 2.93 | 11.92 | 3.75 | -1.26 |
| 인지능력 | 27.95 | 6.18 | 29.00 | 3.14 | -0.57 |

* $p < .05$

둘째, <표 8>과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학교 2학년 아동인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외동이와 형제아 모두 '선생님에 대한 애정'의 영역($t=-2.36, p<.05; t=-2.35, p<.05$)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국민학교 2학년 아동의 '선생님에 대한 애정'요인에서는 형제 유무보다는 성에 따른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여, 여아의 경우에 남아보다 선생님에 대한 애정 표현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8> 국민학교 2학년 외동이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

| 독립변인 | 남 아 (N=19) | | 여 아 (N=15) | | t |
|----------|------------|------|------------|------|--------|
| | \bar{X} | S.D | \bar{X} | S.D | |
| 지도력 | 19.00 | 5.24 | 16.57 | 4.07 | 1.44 |
| 유능성 | 25.42 | 5.07 | 24.67 | 4.22 | 0.46 |
| 방해성 | 22.89 | 7.00 | 21.13 | 6.05 | 0.77 |
| 불안정성 | 7.83 | 2.12 | 8.07 | 1.71 | -0.34 |
| 선생님에대한애정 | 11.44 | 3.18 | 14.07 | 3.01 | -2.36* |
| 인지능력 | 35.35 | 6.98 | 32.71 | 6.68 | 1.07 |

* $p<.05$

<표 9> 국민학교 2학년 형제아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

| 독립변인 | 남 아 (N=18) | | 여 아 (N=19) | | t |
|----------|------------|------|------------|------|--------|
| | \bar{X} | S.D | \bar{X} | S.D | |
| 지도력 | 21.44 | 3.63 | 21.21 | 3.63 | 0.20 |
| 유능성 | 29.11 | 3.85 | 29.68 | 2.60 | -0.53 |
| 방해성 | 24.28 | 7.50 | 22.53 | 5.15 | 0.83 |
| 불안정성 | 7.06 | 2.36 | 7.53 | 2.48 | -0.59 |
| 선생님에대한애정 | 11.22 | 3.25 | 13.58 | 2.85 | -2.35* |
| 인지능력 | 39.65 | 4.50 | 39.53 | 3.78 | 0.09 |

* $p<.05$

셋째, 국민학교 5학년 아동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의 차이는, 외동이의 경우에서만 나타났다(<표 10>). 즉, 외동이 여아가 외동이 남아보다 '유능성'($t=2.31, p<.05$)과 '인지능력'($t=2.87, p<.01$)에 있어서 유의하게 더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것은 유치원 아동인 경우, '유능성'($t=-2.21, p<.05$)에 있어 외동이 여아가 외동이 남아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던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로서, 이는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5, 6세 아동인 경우에는 어머니가 자발적인 이유로 외동이를 가진 경우가 훨씬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중학교 1, 2학년 아동 및 고등학교 1, 2학년 아동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의 차이는, 외동이와 형제아 모두의 경우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형제아 집단은 모든 연령층에 있어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외동이의 경우는 유치원 아동과 국민학교 5학년 아동에게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표 10> 국민학교 5학년 외동이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

| 독립변인 | 남 아 (N=16) | | 여 아 (N=12) | | t |
|----------|------------|------|------------|------|--------|
| | \bar{X} | S.D | \bar{X} | S.D | |
| 지도력 | 17.64 | 4.78 | 15.58 | 5.45 | 1.03 |
| 유능성 | 26.20 | 6.05 | 20.82 | 5.64 | 2.31* |
| 과민성 | 22.93 | 7.44 | 22.17 | 5.44 | 0.30 |
| 불안정성 | 8.64 | 3.32 | 8.83 | 2.37 | -0.17 |
| 선생님에대한애정 | 11.64 | 2.73 | 10.75 | 3.44 | 0.74 |
| 인지능력 | 34.07 | 6.52 | 26.60 | 6.13 | 2.87** |

* $p<.05$ * $p<.01$

다음으로는, 형제유무와 성별이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표 12), 국민학교 5학년 아동의 인지능력에 있어서만 형제유무와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 형제아는 남아(X=36.53)와 여아(X=36.55)의 점수에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외동이는 남아(X=34.07)가 여아(X=26.60)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3. 어머니의 출산동기에 따른 외동이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

먼저, 한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출산동기는 '비자발적인 이유'와 '자발적인 이유'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구분되었으며, 아동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출산동기(비자발적/자발적)는 χ^2 검증으로 분석되었다(표 12).

〈표 11〉 국민학교 5학년 아동의 형제유무 및 성별에 따른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

| 사회적능력 및 인지능력 | F ratio | | |
|--------------------|----------------|---------------|-------------------|
| | 형제유무 (df=1) | 성 별 (df=1) | 형제유무*성별 (df=1) |
| 지도력 | 17.651*** | 4.302 | .142 |
| 유능성 | 11.767*** | 4.019 | 2.542 |
| 불안정성 | 4.304* | 1.223 | .493 |
| 방해성 | .142 | 585 | .068 |
| 선생님에대한애정 | .004 | 337 | 1.861 |
| 인지능력 | 12.773*** | 3.315 | 5.148* |

* p<.05 *** p<.001

그 결과, 한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출산동기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외동이를 낳게 된 이유에서 자발적인 경향이 많았고, 현재 자녀가 중·고등학생인

〈표 12〉 한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출산동기에 대한 빈도

| 연령 | 유치원 | 국민학교 | 국민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계 |
|--------|----------------|----------------|-----------------|----------------|----------------|-----------------|
| 이유 | 5,6세 | 2학년 | 5학년 | 1,2학년 | 1,2학년 | |
| 비자발적이유 | 13 (38.24%) | 16 (47.06%) | 17 (60.71%) | 26 (74.29%) | 20 (66.67%) | 92 (57.14%) |
| 자발적이유 | 21 (61.76%) | 18 (52.94%) | 11 (39.29%) | 9 (25.71%) | 10 (33.33%) | 69 (42.86%) |
| 계 | 34 (100.0%) | 34 (100.0%) | 28 (100.28%) | 35 (100.0%) | 30 (100.0%) | 161 (100.0%) |

$\chi^2=11.83$ $df=4$ $p<.05$

어머니들은 비자발적인 이유로 한 자녀를 갖게 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사회적 능력 평가척도를 달리 사용하였

기 때문에, 어머니의 출산동기(비자발적/자발적)에 따른 외동이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의 비교는 같은 연령집단 내에서만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각 연령집단내에서 어머니의 출산동기(비자발적/자발적)에 따른 외동이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지 않았다.

V. 논의 및 결론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제유무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는, 연령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즉, 국민학교 아동과 중학교 아동인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외동이가 형제아에 비해 더 부정적인 결과를 얻었으나, 유치원 아동과 고등학교 1, 2학년 아동의 연령에서는 형제유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즉, 현재 유치원 아동의 어머니들은 더 적은 수의 자녀를, 보다 바람직하게 양육하려는 가치관에 따라 비교적 자발적으로 한자녀를 선택한 경향이 많으며,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외동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사회전반에 걸쳐 차츰 변화해 가고 있으므로, 이것이 한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아동의 발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고등학교 1, 2학년 아동인 경우에는, 한 자녀를 갖게 된 동기가 비자발적인 경향이 많고, 또한 외동이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등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외동이의 발달이 더욱 부정적일 것으로 추측했었으나, 오히려 이 연령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있어 형제유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특히, 외동이의 경우는 성장하면서 가정밖의 요인들 예를 들면, '또래'와의 상호작용등을 통하여 사회적인 기술을 학습하게 되면서 형제아와의 차이는 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Falbo(1982)가 지적했던 외동이의 발달에 있어 '연령에 따른

효과'는 본 연구 결과, 지지되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외동이와 형제아의 두 집단으로 비교한 것 이외에, 형제아인 경우에도 첫째아와 둘째이하의 아동을 구분하여 외동이와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국민학교 5학년 아동의 '불안정성'요인과 고등학교 1, 2학년의 '인지능력'에서 외동이와 형제아의 두 집단으로 비교한 결과와 외동이와 첫째아, 그리고 둘째이하의 세 집단으로 비교한 결과 사이에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단순히 외동이와 형제아를 두 집단으로 비교하는 것은, 형제아의 '집단 내 차이'를 상쇄시켜 외동이와 형제아간의 차이를 확대시키거나 혹은 그 차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세 자녀 이상의 대가족 아동인 경우에는 이러한 결과의 차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결과의 해석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더우기, 외동이를 첫째아와 한 집단으로 묶어 연구하거나, 이성의 형제가 있는 외아들, 외딸을 형제아와 비교한 이전의 연구(이남기와 정복남, 1977; 우희정, 1983; 김제한, 1984)들은 결과적으로 형제유무에 따른 영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형제의 유무에 따라 아동의 '인지능력'을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아동과 고등학교 아동인 경우에는 형제유무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국민학교 아동과 중학교 아동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형제아가 외동이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지적능력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이 외동이가 형제아에 비해 더 우수함을 보고하고 있으므로 (Ching, 1982; Falbo & Snell, 1984; Falbo & Polit, 1986) 이러한 연구결과들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우선, 지적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가

서로 다르다. 즉,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표준화된 측정도구인 지능검사(IQ)를 사용하였으며, 부분적으로 락업성취가 이에 관련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아동의 인지능력을 평가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교사의 편견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인지능력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능력에 대한 평가가 동일한 한사람 즉, 담임 선생님의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두가지 능력사이의 상관관계는 높아질 수 있다(Allen, Weissberg & Hawkins, 1983). 특히, 사회적 능력은 평가자의 주된 관찰환경이 학교일 경우에 다시 말하면, 교사나 또래에 의해 평가되었을 때 인지능력과의 관계가 다소 확대된다(Ford, 1982).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외동아와 형제아간의 '인지능력'의 차이는 이러한 평가방법에 따른 문제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의 연령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통제되었을 때, 형제유무에 따른 아동의 '인지능력'에는 차이가 없었으므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외동아의 지적능력이 감소하게 된다는 confluence model은 본 연구 결과, 지지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세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남아선호사상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하나일 경우에는 '아동의 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아동의 성별에 따라 외동아와 형제아의 사회적 능력과 인지능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국민학교 5학년 아동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외동아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형제유무와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네째, 각 연령집단 내에서, 어머니의 출산동기(비자발적/자발적)에 따라 외동아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을 비교해 본 결과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경우에는, 출산동기(비자발적/자발적)에 따라 그들이 아동을 대하는 태도나 양육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본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같은 연령집단내에서는 어머니의 출산동기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 개인이 속한 문화나 경험이 가장 크게 영향 미치고 있음을 볼 때(박성연, 1986), 개인의 선택(출산동기)보다는 그 집단 전체가 경험하게 되는 문화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연령집단내에서의 출산동기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어머니의 출산동기에 대한 문제는 거시적인 측면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며, 실제로 이러한 출산동기에 따라 어머니가 아동을 대하는 행동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업이 요구된다고 본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통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의 연구들에 의하면, 대체로 교사는 부모보다 신뢰로운 평가자로 인정되고 있으나(Connolly & Doyle, 1981; Harter, 1982), 최근에 이르러 교사의 평가가 학교생활에 국한된 영역 외에 전반적인 아동의 능력에 대해서도 과연 신뢰로운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Totta & Crase, 1982). 또한, 후광효과나 기대 등 교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Loranger, Lacroix, & Kaley, 1982). 따라서 특히, 외동아와 같이 어떠한 편견에 치우쳐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다 다양한 평가자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본 연구의 형제아는 모든 연령에서, 2명의 자녀를

둔 소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비교된 외동이와 형제아간의 차이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대가족 아동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본 연구는 여러가지의 제한점으로 종단적인 연구를 할 수 없어 아동의 연령에 따른 발달상의 변화를 추적할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지금까지의 국내연구들과는 달리 외동이의 발달을 연령별, 성별로 비교 연구해보고자 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경제기획원 조사 통계국. (1985).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경제기획원 조사 통계국.
- 김상희. (1990). 형제간 및 또래간 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가족인구학적 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숙경. (1989). 외동이와 형제아의 모자녀관계 및 사회성에 관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아. (1990).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제 변인에 관한 연구—어머니와 교사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제한. (1984). 출생순위에 따른 성격차에 대한 일 연구. 서울교대 논문집, 제17호, 491-512.
- 김제한. (1986). 한 자녀와 두자녀 비교 : 가정환경요인과 자녀의 지능 및 인성과의 관계. 서울 : 대한가족계획협회, 1-17.
- 김진남. (1987). 외동이와 두 자녀이상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법실. (1986).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그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연. (1986). 자녀에 대한 가치관—어머니와 딸 두 세대간의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4권, 4호, 189-197.
- 박성연. (1990). 외동이 발달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60주년 기념교수 논문집,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편, 75-94.
- 서동주. (1988). 형제수와 아동의 성격특성간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우희정. (1983). 독자의 성격과 가족환경과의 관계 조사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남기, 정복남(1977). 외동이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논문집, 제16호, 11-18.
- 이성진, 이기우. (1986). 한자녀 가정에 대한 조사 연구 : 한자녀 가정의 사례와 효율적인 교육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대한가족계획협회, 9-55.
- 최경순. (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llen, J. P., Weissberg, R. P. & Hawkins, J. A. (1989). The Relations Between Value and Social Competence in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458-463.
- Blake, J. (1981). The Only Child in America: Prejudice versus Performanc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 43-54.
- Blake, J., Richardson, B., & Bhattacharya, J. (1991). Number of Sibling and Soci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

- 271-283.
- Brackbill, Y., & Nichols, P. L. (1982). A Test of the Confluence Model of Intellectu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92-198.
- Ching, C. C. (1982). The One Child Family in China: The Need for Psychosocial Research. Studies in Family Planning, 13, 208-212.
- Clark, S., S. J. Crase, & D. Pease(1983). Iowa Inventory for Parent Assessment of Children's Competencies. Unpublished Manual for IIPACC,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Inc.
- Conolly, J. & Doyle, A. B. (1981). Assessment of Social Competence in Preschoolers: Teachers Versus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7(4), 454-462.
- Falbo, T., & Cooper, C. R. (1980). Young Children's Time and Intellectual Ability.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73, 299-300.
- Falbo, T. (1981). Relationships between Birth Category, Achievement and Interpersonal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121-131.
- Falbo, T. (1982). The One-Child Family in the United States: Research Issues and Results. Studies in Family Planning, 13, 212-215.
- Falbo, T. (1984). Only Child: A Review. In T. Falbo(Ed.), The Single-Child Family. New York: Guilford Press.
- Falbo, T., & Snell, W. E. (1984). Experimental Tests of the Sibling Tutoring Factor. In T. Falbo(Ed.), The Single-Child Family. New York: Guilford Press.
- Falbo, T., & Polit, d. F. (1986). Quantitative Review of the Only Child Literature: Research Evidence and Theory Development. Psychological Bulletin, 100(2), 176-189.
- _____. (1987). Only Children and Personality Development: A Quantitativ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309-325.
- Ford, M. E. (1982). Social Cogni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3), 323-340.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Jiao, S., Ji, G., & Jing, Q. (1986). Comparative Study of Behavioral Qualities of Only Children and Sibli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7, 357-361.
- Kidwell, J. S. (1978). Adolescents' Perceptions of Parental Affect: An Investigation of Only Children vs Firstborns and the Effect of Spacing. Journal of Population, 1, 148-166.
- Loranger, M., O. Lacroix, & R. Kaley. (1982). Validity of Teachers' Evaluations of Students' Social Behavior. Psychological Report, 51, 915-920.
- Pease, D., Clark, S. G., & Crase, S. J. (1979). Iowa Social Competence Scales: School Age and Preschool Manual. Iowa State Research Foundation, Inc.
- Totta, Sister Anna & S. J. Crase. (1982). Parents' and Day-care Teachers' Perceptions of

Young Children's Skill. Perceptual and Motor Skill, 54, 955-961.

Zajonc, R. B., & Markus, G. B. (1975). Birth Order and Intellectual Development. Psychological Review, 82, 74-88.

Zajonc, R. B. (1976). Family Configuration and Intelligence. Science, 92, 227-235.

Zheng, S. Y., & Colombo, J. (1988). Sibling Configuration and Gender Differences in Preschool Social Participatio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0(1), 45-50.